

## 차분히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외 곡물자원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할 때

지난 2009년 국내 사료산업을 되돌아보면 사사다난하고, 희비가 교차한 한 해가 아닐까 싶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었고,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수년간 950원대 이하에서 유지 하던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외화 유동성 악화로 1,600원까지 수직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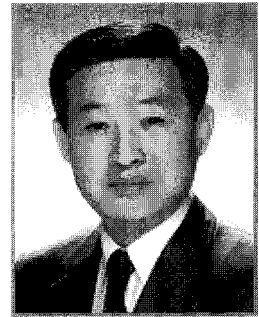
그리고 사료용 곡물과 선임의 폭등으로 인한 원가상승과 환차손까지 겹쳐 2009년 국내 사료산업은 IMF 이후 최대 어려운 시기에 시작되었고, 2008년에 이어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어두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그러나 암울하게 보였던 국내 경제는 다행히도 2009년 1/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유동성 부족 완화와 경기침체의 장기

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 되었으며, 각국이 세계적인 공조 속에 재정 및 통화 확장정책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추세가 이어져 환율의 안정과 더불어 세

계 실물경제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원료 가격 및 해상 운임의 상승 그리고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 원료의 바이오 연료로의 전환 등도 어려운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켜 2010년 전망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작했던 2009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최근 국내외 사료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국내 사료산업의 전망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장진설

부국사료(주) 대표이사,  
본회 이사

## □ 국내 배합사료 생산동향

2009년도 11월말 현재 국내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은 14,919천 톤으로 2008년 14,694천 톤 대비 1.5% 증가세를 보이며,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소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표 1>

축종별 생산량을 보면 생산 비중이 높은 양돈 사료의 경우 전년 대비 0.1% 감소하였고, 축우 사료는 0.7% 증가하였다. 반면에 양계 사료는 4.0%의 증가폭을 보여 전체 사료 생산량의 소폭 증가를 주도하였다.

양돈 사료는 2008년부터 지속되어온 사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이 모든 사육두수 감소로 이어져 2009년 초에는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돈가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인한 하락 외에는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써코 백신 보급으로 소모성 질병에 의한 폐사율이 낮아지면서 2/4분기

이후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배합사료 생산량이 2008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모든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0년도에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육계 사료의 경우에도 연중 계육가격 호조 유지와 2/4분기 이후 육용종계 입식이 크게 증가하여 7.7%의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산란계 사료도 1.8%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9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6.5%나 증가한 산란계 사육수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축우사료는 전체적으로 0.7%가 증가하였는데, 낙농사료의 경우에는 4.7%나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사료 값 폭등에 따른 사육두수의 감소로 인한 요인도 있지만 배합사료 시장이 조사료나 TMR사료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다.<표 2>

<표 1> 2009년 국내 배합사료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구분	2009.1~11(A)	2008.1~11(B)	전년대비(A/B, %)	
양계	육추	278	305	91.3
	산란	1,764	1,733	101.8
	육계	1,766	1,640	107.7
	종계	273	247	110.7
	소계	4,081	3,925	104.0
양돈	4,824	4,828	99.9	
낙농	1,191	1,250	95.3	
비육	3,863	3,769	102.5	
기타	960	922	104.1	
계	14,919	14,694	101.5	

\*자료 출처 : 한국사료협회

<표2> 가축사육연황

(단위 : 천 두(수))

구분	2008				2009			
	3	6	9	12	3	6	9	12(예상)
육계	67,010	77,853	55,555	54,479	68,694	99,983	68,123	56,490
산란계	57,850	59,723	58,200	59,168	60,237	61,143	61,998	62,300
돼지	8,981	9,153	9,284	9,087	9,177	9,044	9,381	9,428
한·육우	2,241	2,448	2,470	2,430	2,481	2,599	2,641	2,623
젖소	450	445	445	446	448	439	438	439

\* 자료 출처 : 2009.9 가축동향(통계청), 축산관측월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9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던 2007년도의 16,148천 톤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배합사료의 가격 동향 및 전망

2009년도 배합사료 가격은 원료가격의 점진적인 안정세와 더불어 여러 가지 경제 부양 대책에 힘입은 환율 안정세 기조가 맞물려 총 5차례에 걸쳐 사료가격이 총 23~24% 인하되었다. 2008년도의 사료가격 인상 현상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였다.

이와 같이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국제적 경제 상황 여건 변화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해상 운임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라 좌우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 ◆ 원재료 가격 및 해상 운임의 변동

2009년 초부터 옥수수 수급의 불안정 및 선임의 강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기대감 등으로 인해 미산 옥수수 가격은 강세를 보

여 왔으나 지난해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증가 하고 수확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가격의 하향 안정이 예상되나 남미 지역의 옥수수 생산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세계 옥수수 수출시장은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미국의 옥수수 이월 재고 비율이 12.5%로 향후 기후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옥수수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곡물, 금, 원유 등 원자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시장이 발달하면서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원자재의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 될 것이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 새로운 에탄올 수요의 증가와 세계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 특히 중국, 인도 등의 식생활 개선으로 인한 수요 증가 및 경작지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과거와 같은 저곡가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료원료의 할당 관세 적용품목의 축소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원재료 가격 상승의 큰 몫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상 운임은 겨울이 지나고 2010년에 신조선의 출현으로 선임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세계 교역량의 회복 및 국제 유가가 올해 대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운임 상승의 요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국내 경제 전망

최근 국내 실물경기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도 국내경기도 세계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 호조로 상승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년도 사료시장도 국내 경기 회복에 따라 지난해 보다 다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플루 등과 같은 잠재된 위험 요소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이후 농협 사료의 가격인하 정책과 사료업체들의 2008년도 영업 손실분에 대한 만회로 곡물가의

안정과 환율 하락 분을 미리 반영하여 금년도 매출액 증대를 꾀하고 있는 업체 간의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으로 사료업계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 번 내린 사료 가격은 다소간에 인상요인이 발생하여도 재인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 환율의 변화

지난 3월에 1,600원 선에 근접했던 환율은 현재 1,150~1,200원 선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회복 및 위험 완화 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나 국내 경제의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외국인 주식 순 매수세로 인한 달러 공급 우위 등 환율 하락 요인이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및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등의

분기별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 원/\$)

	전망일	09.4/4분기	10.1/4분기	10.2/4분기	10.3/4분기	10.4/4분기
KDB	10/14	1,160	1,100	1,080	1,060	1,040
Bloomberg middle	10/14	1,175	1,152	1,124	1,100	1,088
Deutsche Bank	10/07	1,200				1,100
USB AG	09/11	1,250				1,250
Goldman Sachs	09/11	1,250	1,200		1,150	
BOA	09/30	1,100	1,100	1,150	1,050	1,000
Morgan Stanley	10/13	1,150	1,106	1,063	1,019	975
HSBC	10/02	1,200	1,150	1,125	1,100	1,075
JP Morgan	09/09	1,170	1,170	1,180	1,180	
BNP Paribas	09/24	1,150	1,120	1,090		1,050

\* 자료 출처 : Bloomberg

환율 상승 요인 보다 우세가 예상되어 2010 년도에는 비교적 안정된 1,050~1,100 원/\$선 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된다.

## ▣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

정부는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친환경 농축산물의 공급 비중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축산업 분야도 녹색성장 시대에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시스템 개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품질 향상 및 이용 기술 개발 등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연구 사업에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사료업체 및 양축농가는 환경비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강구하여 자구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축산업의 구조적 변화

대군 사육농가나 브랜드 사업을 진행 중인 계열업체들은 OEM사료 또는 전용사료를 독자 개발하여 기존 배합사료 공장에서 임가공하거나, 기존 사료공장을 인수하여 자체 생산 체계로 전환되면서 일반 사료시장의 폭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육

계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개인 농가를 상대로 한 시장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배합사료 업계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생산 및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계열화 쪽으로 방향을 바뀌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당 사육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축산 선진국들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외국의 값싼 축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종별 계열화는 적용되는 시기가 문제이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 ▣ 조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난 해 법인세법 시행령이 “미 실현이익 및 손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하에 개정(2008.2.22)됨에 따라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에 있어서 환산손익의 미 실현 손익에 대한 인정치 않음으로써 올 한해 흑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세후에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당장의 환차익을 생각해서 지나친 할인 판매를 하다 보면 자칫 적자로 돌아 설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아니 된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현재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 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배합사료를 자가 소비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자가 소비하지 않고 재판매(도, 소매업)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세를 과세하고 재판매업체는 그 과세 분을 환급받는 실정으로 면세사업자인 영농조합 및 농업 회사 법인에 부과된 부가세는 고스란히 양축농가에게 전가되어 생산원가를 높이게 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경우 양축농가의 소득 보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취지를 감안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단순화 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에는 사료의 완전 면세가 반드시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 ▣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해마다 동물성 단백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료용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안정적인 사료원료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그리고 한정된 시장 속에서 과잉 경쟁을 지속해 온 결과 과도한 생산 설비 투자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사료 산업은 축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사양관리 기술의 발전, 친환경 축산의 필요성 등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축산 선진국들과의 FTA 등으로 인한 세계화의 경쟁 구도 속에서 축산업의 구조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존

립기반이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료업계 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축산업계가 서로 힘을 합쳐 상호 공조를 통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정부 주도로 축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계절적 기후 변화가 큰 국내 환경 조건을 고려한 한국형 육종개발 연구에 더욱 더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며, 부족한 사료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곡물자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민간 주도의 해외 자원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물류 인프라 구축과 토지의 임대 및 사용 그리고 계약 파기 시 대책 등 민간업체의 투자 불안 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농가도 사료비 절감 및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양돈의 경우 생산성 지표인 MSY(모돈 연간 출하두수)를 비교해 보면 2007년 기준으로 13.4두(2009년 15.0두 예상)로 축산 선진국(네덜란드(24.7두), 덴마크(24.5두), 미국(19.8두))에 비해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도체 1kg당 돼지고기 평균 생산비(2007년 기준)도 2.24달러로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에 비해 35~90%나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료업계도 지나친 가격 경쟁에만 치중하지 말고 세계화 경쟁시대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국내 축산업의 생존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및 수입선 다변화, 물류 체계 개선 문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사료자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해외 곡물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의 사료자원 확보는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타당성에만 맡겨 놓아서는 아니 되며 국가 식량안보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여 정부의 지원이 병행되어져

야 한다. 기업의 애국적 비즈니스에만 기대서는 투자를 이끌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료곡물의 수입물량이나 국가 위상으로 볼 때 미국 등 곡물 수출국의 엘리베이터 투자나 동남아 지역과 같은 잠재적 농업생산 가능지역의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제곡물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 동안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할 때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다가도 곡물가격이 안정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 왔으나 이제는 차분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외 곡물 자원의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

#### 〈장진설 대표이사 프로필〉

- 중앙대학교 경상대학
- 동진기업(주)
- 부국사료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역임
- 2003년 12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름